



보도자료

영천
청도 국회의원
이만희
자유한국당

2019.10.10(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 784-5901 / FAX: 02) 788-0302 / E-mail: yc20002@naver.com

담당자 : 강보인 비서관

이만희 의원, 고액의 수협 퇴임 공로금 지적, 전수조사 및 통제장치 마련 촉구 수천만원 예사에 3억 지급하는 등 조합별 천차만별

지난 2001년 정부에서 1조1,581억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이 현재까지 9천억 넘는 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협의 회원 조합에서는 퇴임 공로금 명목으로 퇴직 임직원에게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에 따르면, 지역의 모 수협 조합장이 올 상반기 퇴임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5억원의 공로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비난 여론이 일자 2억을 자진 반납하는 형식으로 3억 원을 받아간 사실이 있는데, 애초 결의된 5억은 해당 조합의 전년도 전체 순이익의 5%가 넘는 거액으로 내부에서조차 전례 없는 경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수협의 91개 회원 조합 중 자료를 제출한 22개 조합에서 올 상반기 퇴직자에게 퇴직금 외에 퇴임 공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5천만 원 1명, 3천만 원 이상은 4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동일하게 2007년에 입사해 2019년에 조합장으로 퇴임했음에도 퇴임시 순금열쇠와 기념타월 등 450여만 원이 지급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현금이 2천2백만 원 넘게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 수협 회원조합 퇴임 공로금 지급 사례 >

소속 및 직급	지급명목	지급액
OO수협 조합장	공로금	5억원 (이후 2억 반납)
OO수협 조합장	공로금	5천만원
OO수협 상무	특별지원금	2천만원
	자기개발비	1천만원
	재취업연수비	5백만원
	건강검진비	2백만원
OO수협 상임이사	공로금	3천만원

(수협중앙회, OO수협)

이만희 의원은 “상조회 회칙에 따라 수백만 원을 지급했다는 한 곳을 제외하면 결국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이 재원일텐데, 이런 식으로 과도한 퇴임 공로금이 지급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구체적인 재원이나 금액 산정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지급할 수 있다는 식의 이사회 내규, 자체 상별규정 등에 근거해 이 같은 거액이 지급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고 지적하며,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 성과를 감안하더라도 조합 간 수십

배의 차이가 나거나 지급규모 자체가 들쭉날쭉하는 것은 임직원의 사기 저하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앙회 차원에서 퇴직금 외 퇴임자에 대한 금품 지급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산정 방법, 재원 및 지급 범위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